

# 세종문화회관 「제124차 이사회」 회의록

---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3. 28.(수) 15:00~16:29

◆ 장 소 : 회의실(사무동 4층)

◆ 참 석 : 6명(이사장 및 이사)

이사장 김00, 상임이사 직무대행 서정협, 이사 김00, 이사 안00,  
이사 조00, 이사 최00

### ◆ 안 건

- 제350호 보수규정 일부 개정정관(안)
- 제351호 호봉제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제352호 2017년도(19기) 회계결산(안)
- 제353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
- 제354호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처리(안)

### ◆ 보고사항

- 보고사항 : 2018년 이사회 운영계획
- 세종문화회관 개관 40주년 기념 축제

## I. 성원보고

- 재적이사 7명중 이사 6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하다

## II. 의안심의

### □ 제350호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① 안건 주요내용 : 경영본부장 김웅겸 설명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정 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후속 조치>에 의거 보수 규정은 3급 이상 연봉제 직원의 보수에 관한 것인데, 해당사항이 없는 4급 이하 직원과 예술단원의 보수에 관한 조항이 규정에 들어가 있음. 그러므로 보수규정 제 4조(적용대상자) ③항에 '4급 이하 직원과 예술단원의 보수는 호봉제보수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② 의결내용 : 원안대로 의결

### □ 제351호 호봉제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① 안건 주요내용 : 경영본부장 김웅겸 설명

- 안건 제350호와 관련하여 보수규정 조문 조정에 따라 호봉제보수규정 제1조(목적) '보수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함'이라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② 의결내용 : 원안대로 의결

### □ 제352호 2017년도(19기) 회계결산(안)

#### ① 안건 주요내용 : 경영본부장 김웅겸 설명

-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는 '16년 대비 4.3%인 8억 5,700만원 증가한 208억 4,000만원임.
  - 유동자산중 당좌자산은 현금이 20억 3,000만원, 매출채권이 2억 8,000만원 증가하여 176억 2,900만원을 달성하였으며, 재고자산은 2,100만원이 감소하였음
  - 비유동자산은 총 15억 6,300만원이 줄었는데, 시설물 및 무형자산 감가상각에 기인함
- 부채총계는 '16년 대비 27.6% 증가한 184억 6,200만원임.
  - 유동부채는 공연장 대관료 및 행사 선수액 4억 2,000만원, 예수부가세 9,000만원, 통상임금소송 미지급액 및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등 19억이 발생하였고, '18년도 대관 및 임대료 등 선수수익 5억 6,000백만원이 감소하여 63억임.
  - 비유동부채는 1년 이상 전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20억 3,500만원이 증가하여 121억 6,200만원임
- 이에 따라 순자산 총계는 지난해보다 31억원이 감소한 23억 7,800만원임.

- 운영성과표 상 총수입은 '16년 대비 14억 5,900만원이 증가한 513억 8,100만원임.
  - 사업수입은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돈화문국악당, 삼청각을 포함하여 '16년 대비 12억 1천만원이 증가한 507억 1,200만원임
  - 수입 증가 내역은 공연수입이 15억 1,500만원이 증가한 45억 3,100만원, 수입금마련사업수입이 1억 3,600만원이 증가한 14억 9,300만원, 회원수입이 2,100만원 증가한 6,600만원, 교육사업수입이 4,400만원 증가한 2억 8,400만원, 신규사업(우리동네 프로젝트)과 돈화문국악당으로 인한 서울시 출연금이 11억 100만원 증가한 262억 6,300만원임
  - 수입 감소 내역은 전시 및 기획사업 수입이 2억 9,300만원이 감소한 5억 5400만원, 대관수입이 1억 8,400만원 감소한 36억 3,000만원, 임대수입이 2억 1,600만원 감소한 43억 3,200만원, 식음료사업수입이 중국관광객 축소와 매출 감소로 인한 9억 1,400만원 감소한 95억 5,900만원임
  
- 총비용은 '16년 대비 19억 7,700만원이 증가한 545억 2,000만원임.
  - 사업비용은 11억 1,100만원이 감소한 275억 1,200만원이며
  - 사업운영비는 18억 4,000만원이 증가한 257억 5,400만원임
  - 특히 경상사업운영비 및 시설관리비에서는 시간외수당 등 급여가 5억 5,000만원, 잡금 2억 7,000만원, 퇴직급여충당금 3억 8,000만원, 지급수수료 4억, 교육훈련비 5,200만원, 시설관리비 2억 9,000만원 등이 증가하고 일부 감소요인으로 총18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사업손실은 지난해보다는 4억 8,100만원이 감소하여 25억 5,400만원 적자임
- 사업외수익은 교통유발부담금 반환액 2억4,900만원을 포함하여 6억 6,800만원으로 증가함
- 사업외비용은 통상임금지급 배상손실을 반영해서 12억 5,300만원이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당기순손실은 '16년 대비 5억 1,800만원이 증가한 31억 3,900만원임.

## ② 의사발언 요지

- 이사 안00
  - 통상임금지급 소송 진행상황과 향후 예상되는 비용 추정액은 얼마인지 설명 요구
  
- 경영본부장 김웅겸
  - 지난해에 직원 32명이 통상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했음.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반영하라는 것과, 상한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시간외수당을 상한액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 골자임.

현재 1심에서 패소해서 12억 5,300만원의 지불의무가 생겼으며, 통상임금 산입 문제보다는 시간외수당 상한액을 초과하는 지급액에 대한 동의가 어렵다는 방침 하에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1심에 패소한 것이 2017년도이므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지불 의무액 12억 5,300만원을 '17연도 결산과 '18연도 예산에 반영하였음.

○ 이사 김00

- 통상임금지급 소송과 관련한 손실확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설명 요구

○ 경영본부장 김웅겸

-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3가지 정도가 있음

첫째 서울시의 출연금 확대, 둘째는 수지율 및 수익 확대, 셋째는 관리비 절감임. 세 가지 모두 쉬운 방법은 아니나 서울시와 협의하고, 새로운 사장님이 오면 여러 방안을 통해서 수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하겠음

○ 상임이사 직무대행 서정협

- 통상임금지급소송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음. 그러나 결산결과를 보면 7년째 당기순손실이 마이너스임. 예술기관이라는 세종문화회관의 특수성은 있지만 관련 법률을 보면 5년 이상 당기순손실이 나면 경영진단을 시행 및 패널티를 부여해야 함.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고민하겠음

○ 이사 안00

- 공연수입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인 것 같은데, 대중성 있는 공연을 한 것인지, 기획 공연의 퀄리티가 좋아진 건지 설명 요구

○ 경영본부장 김웅겸

- 기획공연은 외부 기획사와 공동사업을 하면서 대관수입은 줄고 공연수입은 증가한 것임. 실질적으로 기획공연하고 대관사업 합치면 '15년도 50억, '16년도 48억5천, '17년은 50억 정도로 꾸준히 50억 정도의 수입임.

- 예술단공연의 수지율은 '16년도에 42%였으나, '17년은 65%로 대폭 증가하였음. 그 이유는 해태 크라운 등 기업협찬수입이 증가한데 기인함.

○ 이사 안00

- 관객 증가에 따른 수입이라기보다는 협찬수입에 의한 증가인지 질의

○ 경영본부장 김웅겸

- 협찬수입에 의한 증가부분이 더 크지만, 예술단공연의 경우 '15년도에 31%, '16년에 41%, '17년에 65%로 수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세종문화회관은 인건비 구조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며, 전체 지출의 55%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서울시 방침에 의한 최저 임금이 올라가고, 공무원의 정규직화 전환 (150여명) 등 여러 가지 피할 수 없는 증가요인에 기인함
- 그러나 증가요인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예술기관에서는 적절치 않은 얘기지만 어쩔 수 없이 수익을 확대해야 함.

○ 이사장 김00

- 세종문화회관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인지 질의

○ 경영본부장 김웅겸

- 35% 수준이며, 다른 국공립 단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임

○ 이사 김00

-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는 정규직화 과정에서 한정된 출연금 내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려다 보니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 직원들한테 열악한 근무환경을 조성한 것임.
- 제일 중요한 것은 시에서 출연금을 많이 받아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연을 기획 및 예술단을 활성화 하는 것임.
- 그러나 출연금 안에서 정규직화 부분까지 진행해야하므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를 감소해야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모든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의에 빠져있음. 시에서는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한정된 출연금 내에서 시 정책인 정규직화 등을 시행하는 것임  
그런데 시 정책에 따라 세종문화회관은 1순위로 직접고용을 시행해서 좋은 근로조건을 제공했는데 이것은 결국 인건비가 너무 높은 재정구조를 만들었기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함

○ 경영본부장 김웅겸

- 서울시는 올해 예산 편성 시 통상임금소송 부분을 반영했고, 전년 대비 출연금도 40억 정도 증가한 상황임

○ 이사 김00

- 직원들은 모르는 사실임. 근로자이사제가 도입이 됐지만 아직 경영진과 소통문제가 있는 것 같으나 서로 소통을 더 잘 하면 될 것 같음.

○ 이사장 김00

- 제작년도 경영평가서에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적이 돼 있는지 설명 요구

○ 경영본부장 김웅겸

- 경영평가 결과 미진한 부분은 공연장 대관율, 수지율, 유료관객 입장률, 대관 가동률, 그리고 고객만족도 등이 있음. 과거에는 아예 성과급이 없는 D등급 받아서 성과급이 0퍼센트를 받았던 적도 있고, 그 후에 70%를 받았었고, 최근 2년동안은 130%를 받고 있어서 조금씩 개선되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수지율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사장 김00

- 노력을 많이 해서 수치상으로는 많이 좋아지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숙제들이 산적해 있고, 작년도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올 해도 어려운 살림을 해야함.
- 이사님들과, 경영진과 또한 단체가 합심하여 극복해야함
-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공연과 관련된 수입 확보와 인건비, 관리운영비를 절감하는 문제 등 경영전반에 대해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안)을 내서 부지런히 실천 해야함.

□ 제353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

① 안건 주요내용 : 경영본부장 김웅겸 설명

- 세입결산액은 예산 491억 600만원 대비 92.1%를 집행한 452억 3,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 491억 600만원 대비 87.6%를 집행한 425억 9,300만원임
- 이에 따른 결산수지율은 106.2%, 순세계잉여금은 23억 4,100만원임
  - 순세계잉여금 23억 4,100만원 중 18억 1,200만원은 '18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유보액은 5억 2,900만원임

② 의사발언 요지

- 상임이사 직무대행 서정협
  - 세출결산 중 사업비 집행률 낮은 이유 설명 요구
- 경영본부장 김웅겸
  - 예술단공연 집행잔액 4억 7,200만원은 뮤지컬단 <광화문 연가>예산 중 일부가 '18년으로 이월된 것과, 오페라단의 보상금 및 수수료 절감액 1억 7,100만원에 기인함. 기획공연 집행잔액 8억 8,700만원은 블랙박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범행사비 2억 정도가 올해로 이월된 것과, 연말 재야음악회 취소, <그레이트 아티스트 시리즈 >진행

방식 변경(공동주최)에 기인함.

③ 의결내용 : 원안대로 의결

□ 제354호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처리(안)

① 안건 주요내용 : 경영본부장 김웅겸 설명

-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 23억 4,100만원 중 세입예산으로 기 편성된 18억 1,200만원을 제외한 5억 2,890만원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세종문화회관은 1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퇴직급여충당금이 '17년 말 기준으로 36억 6,500만원이 부족한 상황임. 추가경정을 통해 '18년에 퇴직충당금으로 책정된 예산 16억 5,800만원에 예산 미반영 잉여금 5억 2,900만원을 전액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편성하여 올해 예산은 총 21억 8,700만원을 충당할 계획임.

② 의결내용 : 원안대로 의결

### Ⅲ. 보고사항

#### 【 2018년 이사회 운영계획 】

○ 경영본부장 김웅겸

- 세종문화회관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에 의하여 회관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함. 정기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이사회와 결산이사회로 연 2회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함.

'18년 세종문화회관 정기이사회는 오늘 개최되는 3월의 회계결산 및 예산결산 심의를 위한 이사회와 12월 중에 '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이사회로 개최할 예정임. 이외에 주요 현안 발생 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님들의 고견을 듣고 정책사항을 결정하여 진행하겠음

○ 이사 안00

- 이사회 개최를 위해서 이사가 몇 명 이상 있어야 하는지, 결산관련 안건을 심의할 때는 감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 감사는 없는지 질의

○ 경영본부장 김웅겸

- 지난 3월 5일자로 전제 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만료됐음.

세종문화회관 규정에 이사회는 15인 이내로 감사는 2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음. 현재는 재적인원이 7명이고, 이사회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므로 이사회 개최에는 문제가 없음.

○ 상임이사 직무대행 서정협

- 새 대표님 모시면서 이사님도 같이 함께 충원할 계획이고, 지금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당분간만 임시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음.

○ 이사장 김00

- 새로운 사장님 오기 전에 세종의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향후 세종이 나아가야 될 장기 발전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종 자체에서는 앞으로 세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함  
그러니까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서 그분의 방향으로 가는 것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릴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달 동안의 공백을 오히려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서로간에 활발한 토론,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기발전, 세종의 개혁, 개선 등의 논의와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임

○ 이사 김00

- 직원들에 의해서 제시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음. 예술단 슬림화 방안, 예술단 활성화 방안 등이 그것인데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안)을 만들어보겠음

○ 이사 조00

- 이사장님께서 지금 잘 짚어주신 대로, 저희가 노동이사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의견을 듣게 되고, 제시를 하고 또 토론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음.  
규정 중에서 노동조합의 단체협상과 모순되는 직제규정도 있고, 예술단체 단원들이 다 변화하기를 원하는 그런 직제규정도 있었고 이래서, 다음 번 이사회를 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들도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임.

○ 이사장 김00

- 당장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세종이 변화 발전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한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연기관으로서의 세종문화회관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단추라도 꿰고 가면 좋겠다는 의견임
- 이 문제는 단순히 경영진이나 단체에만 책임을 미뤄놓고 '경영 잘못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왜 경영이 이렇게 어려운가?' '왜 적자폭을 쉽



게 개선을 못 하는가?’ 또 ‘왜 공연을 하면 세종의 예술단체로서의 위상과 이런 것들이 왜 이러는가?’ 이런 것에 대한 솔직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

- 이제 40주년 됐으니까 ‘앞으로 40년을 우리는 어떻게 가겠다’하는 비전 제시와 그것을 위해서 예술단원들과 모든 세종의 경영진과 직원들이 ‘우리 이렇게 한번 가겠다.’ 하는 서로간의 결의를 다지는 것도 필요함.
- 그래서 이런 공연으로만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 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토론회를 개최해서 수많은 예술계 인사들과 전문가, 관객들, 세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적극적인 변화의 노력을 해야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함

## 【 세종문화회관 개관 40주년 기념 축제】

### ○ 문화예술본부장 김희철

- 세종문화회관 개관 40주년 기념축제를 개최하고자 함.  
컨셉은 ‘새로운 시작, 대담한 도전’이며, 기간은 5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임. 개관 40주년 기념 프로그램은 서울시예술단의 개별 공연과 3개 이상의 예술단이 협업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음.
- <세종 아트 페스타>는 각 개별 공연별 홍보마케팅도 하지만, 전체 축제로서 통합 홍보를 할 계획이며, 홍보물 제작 및 언론보도, 옥외 광고, SPOT 영상제작, 기타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임

### ○ 이사 안00

- <세종 아트 페스타>라는 브랜드가 전에도 쓰던 브랜드인지, 앞으로는 또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

### ○ 문화예술본부장 김희철

- 1차적으로는 40주년 행사만을 위한 브랜드로 구성된 것임.

### ○ 이사 안00

-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쉬운 게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인데, 매번 다른 이름을 쓰는 게 안타까움. 좋은 기획이면 같은 브랜드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의견임
- 또한 세종문화회관 개관 40주년 기념 축제라면 서울시민들이 축하하는 자리여야 될 것 같은데 포커스가 관계자들 중심으로 보여짐. 서울시민들이 <세종 아트 페스타>에 좀 더 올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지 질의

- 문화예술본부장 김희철
  - 축제가 진행되는 4일 동안 다양한 홍보와 전시 및 야외축제 프로그램들은 구성하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음
- 이사 최00
  - 되도록 관계자들보다는 시민과 함께 할 수 페스티벌이 되도록 운영하기 바람
- 이사장 김00
  - 현재 프로그램은 40주년을 위한 기획 아이디어와 새로운 창작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음. 예술단공연을 같은 시기에 모아서 진행하고, 사람들을 좀 더 초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알리자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면 예술계에서 엄청 욕먹을 것임. 5월에는 이렇게 진행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정말 의욕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 함.
- 이사 최00
  - 예술단의 단장님이 안 계시는 데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누가 예술단의 개관 40주년 기념 프로그램을 기획했는지 질의
- 문화예술본부장 김희철
  - 각 예술단에서 협의하여 기획하였음
- 이사 최00
  - 개관 40주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하는, 혁신적으로 미션이 나와야 되는 시기에 단체들의 단장님이 오랫동안 자리에 안 계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세계 어디에 가도 임기 끝나기 전 6개월 전에는 후임 단장 발표가 되어야 함.
  - 단장 임명에 대한 것도 앞으로 많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임
  - 단장이 없는 상태에서 페스티벌에 어떤 작품을 낸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임
- 이사 조00
  - <세종 아트 페스타> 이런 큰 행사는 미리 2년, 3년 전에 계획을 잡고 좀 더 소통하여, 우리가 40년 동안 쌓아온 예술적인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게 하기를 바람. 또한 <세종 아트 페스타> 통합홍보(안)이 좋은데, 이러한 것들로 평상시 예술단체가 공연을 할 때도 지원을 해주길 희망함.
- 상임이사 직무대행 서정협
  - 지금 <세종 아트 페스타> 40주년 기념식은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었던 것인데,

저도 준비가 잘 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일단 날짜는 정해졌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두가지 말씀하셨던 것, 어떻게 하든 공연단의 성과, 그동안 했던 것들이 드러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시민중심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이사장님이 장기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직무대행이지만 고민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음.

○ 이사장 김00

- 세종의 제일 큰 문제점은 세종의 방향이, 세종문화회관이라는 이 공연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임.  
이제는 세종문화회관이 어떤 정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공연장이 아니라 예술적 목표와 방향을 뚜렷이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함.
- 각 예술단체들이 예술적으로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제대로 된 예술활동을 해야하며,
- 경영진에서는 이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공연장을 세계적인 극장으로 키워내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서울시와 마음을 맞춰 실행해야함
- 예술단과 경영진, 그리고 서울시가 방향과 목표를 맞춰서 향후 10년의 장기 계획을 세우고 50주년 기념 축제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어떤 사장님이 또는 어떤 단장님이 오든 그 방향성에 맞춰서 진행 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이러한 방향성과 계획이 없이 운영이 돼왔기 때문에 현재 40주년 기념 공연은 세종의 색깔도 보이지 않고, 이게 무슨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시예술단체들의 레퍼토리인가? 하는 의문이 생김. 이것은 어디 밀라노 시립예술단 레퍼토리 같음. 그래도 우리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의 이름을 땄으면 우리의 창작력과 우리의 예술성이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음. 굉장히 반성하고 많은 고민을 해야함
- 임금협상 하는 것만큼 우리 단체가 얼마나 예술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력해야함
- 어떤 공연을 하려고 하느냐에 목숨을 걸고 전념을 해서 혁신적이고 새로운 공연들을 시단체들이 만들어야 하며, 그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술가들의 의무임.
- 세종문화회관 개관 40주년 기념 축제를 하는데 서울시무용단이 40주년을 대표해서 자랑할 만한 레퍼토리가 <카르멘>밖에 안된다는 것은 무용계에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할 것임
- 단체들도 단장님이나 예술감독님이 오셔서 레퍼토리 정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공식이면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그분들의 좋은 기획(안)과 아이디어 받는 틀이 있어야 함, 각 단체마다 레퍼토리 자문위원회 같은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임.
- 같은 맥락으로 세종의 전체적인 기획공연, 이런 40주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세종

자체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자문단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함. 각계 각층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각 예술계의 전문가들이 세종이 하는 사업에 동참해서 쓴 소리도 하고 도움이 되는 소리도 할 수 있게 해야 그 힘을 얻어서 예술활동도 더 발전할 것임.

- 분야별 예술계 분야에서는 인정도 안 하고 왕따 시켜버리는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가 돼서는 안되며, 특히나 국공립,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술단이나 공연장은 그 분야 예술계의 많은 의견과 전문가들을 함께 해 나가야 될 의무가 있음.
- 예술감독님이 어떤 분이 왔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혼자 단체를 운영하거나 좌지우지해서는 안됨.
- 그래서 아무리 세계적인 훌륭한 예술감독이 오더라도 너무 독단적으로 자기 취향적으로만 예술단체를 운영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러한 전문가들의 참여나 자문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함. 예술단과 경영진과 서울시가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세종 40주년 참 축하할만하다.' 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IV. 폐회선언

- 이사장 김00 : 재단 안전에 여러 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감사를 표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 : 16시 29분)